

단편소설

# 천화(遷化)

이연초

그림=하루  
 ▲홍익대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 대학원 졸업  
 ▲2013 신세계미술제 대상, 개인전 6회  
 ▲2014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여**자는 쪽창 가까이 의자를 끌어 당겼다. 오금지에 바짝 힘을 주면서 고개를 창가로 밀착시켰다. 화단가에서 불쑥 뻗어 나온 나뭇가지처럼 생뚱한 팔 하나가 여자의 시선을 잡아챘다. 허공에 들린 그 팔만 아니라면, 상처가 한쪽으로 15도쯤 기울어 노인의 모습은 여섯시 오 분 전에 멈춰 선 시계바늘 같았다. 지팡이를 짚은 오른손과 달리 머그잔 같은 것을 차켜든 다른 한 손 때문에 여자는 점점 긴장감을 느꼈다.

저 팔 좀 내렸으면... 여자는 두 손으로 황격막을 문질렀다. 평소라면 화장실을 다녀온 뒤 야채수를 마실 시간이었다. 여자는 마른 입술을 달싹거렸다.

그만 들어가세요.

어디로, 어디로 말인가? 내가 들어갈 곳은 없다네. 나갈 곳도 없다네.

고집 센 영감탱이구나.

여자는 모노드라마 배우처럼 표정을 바꿨다. 손가락으로 창틀에 낀 먼지물지를 통기둥 건드렸다. 마침 화단가 목련이 흰 꽃잎을 하르르 노인의 기우뚱한 어깨위로 떨어뜨렸다.

누가 좀 데려갔으면, 어느 보호소에서라도 나와 햇살 따스한 곳으로 데려갔으면.

여자는 웅얼거렸다. 실내의 서늘한 기운에 몸이 떨렸다. 푸르딩딩한 맨발을 꼼지락거리던 여자는 몸을 이리저리 비틀었다.

움직이란 말야!

여자는 방광이 터질 것 같았다.

망할 노인네! 죽어버려!

노인의 요지부동이 가증스러워졌다. 어서 한 마리 꽃뵈처럼 스프리 화단 속으로 사라지든지, 민달팽이처럼 햇빛 속에 녹아나버리든지. 여자는 그런 종말을 지켜보고 싶었다.

죽어, 차라리 죽어! 그대로 고구라져버려!

한바탕 통증이 등뼈를 훑고 지나갔다. 여자는 거친 숨을 가다듬었다. 노인이 한 마리 새처럼 보였다. 여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제 노인은 허수아비 같았다. 누가 좀 데려갔으면, 그녀는 누군가 나타나기를 다시 간절히 바랐다. 경비라도 다가가 담벼락에 기대 세워준다면. 그저 담배 한 개비 입에 물려주면서, 오늘 햇살이 참 좋겠군요, 말을 붙여준다면.....

통증이 등뼈를 타고 시타구리로 흘러내렸다.

노인이 잠깐 움찔했다. 허공에 들린 왼팔을 가볍게 내렸다. 여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자유로워진 손목은 노인의 엉덩이 옆에서 흔들거렸다. 당장 화단가에서 꽃이라도 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여자는 비로소 쪽창 턱받이에 놓인 탁상시계를 바라보았다. 의자를 붙잡고 몸을 일으켰다. 방광이, 가슴이, 위가, 등뼈가, 열 손가락 마디마디가 일제히 아우성 났다.

그 순간, 기우뚱한 노인의 얼굴이 여자 쪽으로 향했다. 노인은 하회탈처럼 웃고 있었다. 그가 분명 웃고 있었다. 부드럽게 퍼져 내린 사월의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노인의 얼굴위로 내려앉아 있었다.

노인이 기다렸던 것은 저 첫 햇살일까. 기다린 연인을 만난 듯 흐뭇한 얼굴로 햇살의 애무에 온몸을 맡긴 저 포스트리니. 번덕심한 노인 같으니라고. 그 완고한 고집은 사라지고 노인은 한없이 유순해 보였다. 15도 각도 기울어진 저 몸 어디에서 저런 기운이 솟아오르는가. 노인은 당당했다. 홀로 서서, 두 다리로 온전히 홀로 서서 해 바라기 하는 기쁨을 맘껏 뽐내고 있었다.

**아**파트 쪽문 옆 작은 공터에 흰 빨랫줄이 쳐져있다. 화단에는 수국이 덩치 큰 사내의 주먹 같은 잎사귀를 퍼 올리고 있고, 그 옆에 누군가 재미삼아 심은 푸른 보릿대가 오소소 시퍼런 기운을 내뿜고 있다. 공터는 햇빛에 반사된 시멘트 바닥으로 눈이 부셨다. 여자는 자꾸 눈을 감았다 다시 떴다. 화단의 진초록 빛과 대조적인 하얀 공터에 노인이 동그마니 혼자서 담배를 따라 걷고 있다. 그는 등산용 자방이로 더듬어 가며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시계추처럼 왕복하고 있다. 흰 빨랫줄이 몸에 닿으면 노인은 그대로 돌아선다. 그는 그 선을 넘으면 안된다. 고압선이라도 되는 듯 우뚝



**움직이란 말야!**  
**여자는 방광이 터질 것 같았다.**  
**망할 노인네! 죽어버려!**  
**노인의 요지부동이 가증스러워졌다.**

했다가 돌아선다.

인간은 항상 선(線)을 만들었다. 안전과 평화, 질서와 행복을 지켜주는 경계선. 법과 도덕과 관습, 교양과 예의라는 각종 이름의 선. 그렇지만 선은 위태롭다. 위태로워서 아름답다. 햇빛처럼, 흰 빨랫줄이 튕겨내는 저 팽팽한 햇빛처럼. 원형대는 흰 빛이 날카롭고 어지럽다. 저것이 고압선이라면, 차라리 150,000V 고압선이라면 좋겠다. 여자는 다시 눈을 감는다. 어지럽증이 쉽게 가지지 않는다.

머칠 전 노인은 혼자 쪽문에 이르렀다가 문턱에 걸려 얼굴을 짓찧었다. 무릎이 꺾인 노인을 지나던 초등생들이 일으켜 세웠고, 마침 할머니가 등산에서 돌아왔다. 누가 얘까지 나오라했어! 참 내... 할머니 목소리는 쌀쌀했다. 여자는 땅바닥에서 배례모를 집었다. 할머니가 낚아채듯 받아들였다.

그날 당장 빨랫줄을 산 것 같았다. 할머니가 쪽문 옆 빈 공터에 줄을 쳐두고 등산을 다녀오는 동안, 노인은 두 시계쯤 선 안에서 보냈다. 왼 손목에는 머그잔 크기의 라디오가 항상 달랑거린다. 노인은 시간의 흐름을 청각으로 해결한다.

이 여편네가 오늘 또 늦는구만... 노인이 라디오를 껐다. 나 좀 도와주시시오, 도움을 호소한다. 여자의 존재를 감지했을까. 그냥 허공에 내어보는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쪽문 입구에 조용히 서 있던 여자가 느릿느릿 노인에게 다가간다. 노인의 눈 밑에는 아직 생채기가 남아있다.

-할머니 또 안오구먼.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저 어깨 잡으세요.  
 -아이고, 고맙소. 색시는 몇 동에 사오?  
 -바로 앞 동이에요... 혹시, 조금이라도 앞이 보이세요?  
 -아녀,아녀, 전혀 안보여. 나이가 몇이 나 되여? 목소리가 꼭 우리 막내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  
 뭐가 좋은지 합죽 웃는다. 누런 앞니 끝이 전부 삭아있다. 흰 눈썹 아래 쌍꺼풀진 두 눈이 살짝 열리면서 깜빡거린다. 그렇게 해바라기를 열심히 하는데도 얼굴은 음식물처럼 희말갈다.  
 -딱 삼년 되었어, 이렇게 눈이 먼 지. 그래도 다리 아파 못 걷는 사람보단 내가 낫지. 내 친구는 꼼짝 못하고 방구석에만 박혀있어. 허, 내가 백번 낫지. 난 이렇게 맘대로 걷고 있잖여.  
 -장애물 없으니 편히 걸으세요.  
 그녀 말에 한결 긴장을 푸는 기색이다. 주차차량을 지나 노인의 아파트까지는 4-50미터 거리다. 출입구에 이르자, 노인의 안도의 숨을 내뿜는다. 숨이 찬 것은 오히려 그녀 쪽이다.  
 -고마워요, 색시. 이제 혼자 갈 수 있어. 노인은 자방이로 더듬거리며 벽을 지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노인의 집이 1층일 거라는 여자의 추측은 틀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여자는 저도 모르게 미끄러져 들어간다. 노인의 손이 익숙하게 7층을 누른다. 역한 체취가 좁은 엘리

베이터 안에 진동한다.

순간, 노인이 고개를 돌린다. 여자는 침묵한다. 유령처럼 노인을 뒤따라 나온다. 노인이 머뭇머뭇 해찰한다. 경계하는 기색이다. 여자는 다시 숨을 멈춘다. 느리게 주위를 둘러본 다음 노인이 반호 키를 누른다. 뒷밖에 손놀림이 정교하다. 마치 다섯 개의 숫자를 누르기 위해 손가락 다섯 개가 온전히 붙어있는 것 같다. 문이 열리고, 열린 문은 노인을 삼키고 재빨리 닫힌다. 푸른 색 조명 아래 드러나는 투명형광글자처럼 여자는 비로소 유형의 몸으로 돌아온다. 천천히 몸을 돌려 계단을 밟는다.

**가**슴보다 쇠골이 더 튀어나온 상처를 바라보며 여자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악행보다 반드시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여자는 납작 달라붙은 유방을 움켜쥔다. 유두는 검은 빛으로 죽어있다. 여자는 바싹 졸았던 음부와 앙상한 허벅지를 천천히 쓰다듬는다. 발바닥에 힘을 준다. 물젖은 옥실바닥에서 중심을 잡은 여자의 두 다리에 정맥이 터질 듯 솟아있다.

여자는 갑자기 허기를 느낀다. 회복기에 50킬로그램이 올랐던 체중이 급격히 30킬로그램대로 곤두박질친 이후, 그녀는 배고픔을 알지 못했다. 선식과 녹음, 야채수프를 먹는 것도 중단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는 먹고 싶어졌다. 먹고 싶어졌다. 몸을 잘 먹고 싶어한다는 충동에 사로잡힌 여자는 병원에서 받은 식욕촉진제를 떠올렸다. 배가 두둥실 부풀어 오른다. 만삭의 배, 생각만으로 숨이 가쁘다.

시든 신선초와 당근 두 뿌리를 개수대에 버려두고 여자는 지갑을 찾아들었다. 회색 베레모 노인은 오늘도 아파트 쪽문 옆에 서 있다. 그의 손에 하얀 빨랫줄이 감겨있다. 혼자서 자박자박 걸음에 틀림없다.

-할머니 안와. 망할 놈의 망구 같으니라고.  
 전에 없이 노인은 화가 나 있다.  
 -아이 참, 할아버지, 혼자 잘 찾아가지

는데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애교 섞인 목소리에 스스로 놀라면서 여자는 노인의 팔을 잡아끈다. 노인 얼굴이 금세 해별쪽 퍼진다. 다 삭은 치아 너머로 컴컴한 목구멍이 보인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여자 팔에 몸을 의지한다. 단단한 뼈마디와 체중감에 일순간 여자의 몸은 긴장한다.

-물 한 잔 마시고 가요?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이번에는 노인이 팔을 잡았다. 기름중이 위, 보이지 않는 글씨 같은 여자를 향해 노인은 서있다. 3할쯤 열린 눈으로 감박인다. 보이지 않는 눈위의 흰 눈썹이 발발 떨고 있다. 어찌하는 것일까, 저 떨림은, 여자는 그 떨림에 이끌리듯 노인을 뒤따른다.

-허, 내게도 이런 손님이 생길 줄이야. 가만 있어보우, 내 냉장고에서 뭐 하나 가져오지.  
 노인의 동작은 실외에서와 달리 민첩하다.  
 -그만 가 볼게요, 할아버지.

딱 삼년되었어, 이렇게 눈이 먼 지. 그래도 못 걷는 사람보단 내가 낫지, 내가 백번 낫지.

난 이렇게 맘대로 걷고 있잖여.

-아, 아니어. 그냥 가만 안되어. 여기, 여기서 박카스 좀 꺼내줘요. 내가 안보여서 말야.  
 노인은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엄살을 부린다.  
 -색시도 마셔요. 고마워, 우리 색시. 순간 핑 퐁다. 박카스 한 병에 여자는 어지럼증과 취기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이게 말이며, 내겐 평생 친구여. 피곤할 때마다 난 이걸 마신다우. 금방 기운이

떨떨 돌아와.

노인이 미소 짓는다. 흐뭇한 저 미소라니. 문득 빼앗고 싶다. 여자는 팔에 실린 노인의 묵중한 중량감을 떠올린다. 아직 고갈되지 않은 기운에 질투가 있다. 여자는 빈 박카스 병을 식탁위에 소리 나게 놓는다. 그녀는 알뜰한 제 손을 천천히 들어올린다. 노인의 손을 해파리처럼 감싼다. 노인이 움찔 놀란다. 작고 마른 두 손이 노인의 투박한 손을 들어올린다. 그녀의 미미한 가슴께로 들어올린다.

어어, 노인이 뭐가 저항하려 한다. 그녀는 민중한 젓가슴에 그의 손을 가져간다. 살 거죽만 남은 강박한 갈비뼈 언저리에 달랑 매달린 두 젓가슴이 노인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얇은 티셔츠 위로 미세한 떨림이, 손가락질이 느껴진다. 아기의 손놀림이 이렇까. 여자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이 될 터치에 눈을 감는다. 노인은 이제 장년이자 열아홉 미소년, 두 살 밖이 아이가 된다. 저릿저릿 피가 데워진다. 피가 돈다. 땀방 뚫는다.

여자는 환금규 눈을 뜨고 일어선다. 허공에서 서서히 낙하하는 노인의 두 손, 놀란 노인의 표정을 맞바라본다. 노인의 실명(失明)이 그녀를 더 대담하게 만든다. 의자 옆으로 두 손을 늘어뜨린 채 어쩔 줄 모르는 노인을 그녀는 가만 안아준다. 그녀 가슴에 꼭 담긴 노인의 얼굴. 아끼처럼 안기던 노인이 어어, 애써 이성을 찾으려한다.  
 -그만 가 볼게요.